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업계는 심각한 불경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황기, 천궁 등이 다소나마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전반적인 거래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세 역시 부동산세를 취하고 있다.

**당귀** 근당 5천5백원으로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당귀는 7천~8천원 선. 올 가을 햇것이 출하되기 까지의 물량은 충분한 상태이나 여전히 거래 부진한 상황이다.

**맥문동**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맥문동 근당 도매 시세는 6천원(거심), 3천원(막막). 해열 소염 진해거담 작용이 있어 주로 더위를 많이 타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오미자 인삼을 곁들여 생맥산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신약** 자연산은 근당 도매시세가 1만7천5백~1만8천원 선이며 재배산은 6천5백~7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수입산에 의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햇것이 나오기 까지 당분간 보험세 유지할 전망이다.

**천궁** 일천궁 근당 도매시세가 9천5백~1만원 선. 토천궁은 현재 1만2천~1만3천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약재에 비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중의 하나. 일부에서는 1만4천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다.

**산수유** 전남 구례산이 근당 5천~5천5백원에, 양평산은 근당 4천~5천원 선에 도매되고 있다. 거래부진한 상황에서 당분간 보험세 유지할 듯.

**백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백지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해과 비슷한 2천2백~2천5백원 선이며 당분간 보험세 유지할 전망이다.

**독활** 전라북도 입실이 주산지인 독활은 국내에서 현재 과잉재배돼 있는 품목.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1천4백~1천5백원이 고작이다.

**백하수오** 자연산 백하수오는 근당 2만5천~3만원 선에 거래되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재배산은 굵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엄지손가락 만한 것은 근당 1만4천~1만5천원, 담배 절반 굵기만 한 것은 7천~8천원 선으로 지난해와 같은 시세. 수입산약은 근당 5천~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약** 작약 역시 전국적으로 과잉재배돼 온 품목으로 예전 시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2천5백~3천원 선, 전라도지역에서 나오는 작약은 2천~2천5백원 선이다.

**반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산 반하 도매시세는 근당 9천원 선이며 수입산은 4천~4천8백원 선으로 보험세. 충남 서산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백출** 백출 역시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 수입산이 많다. 시중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근당 7천~7천5백원 선

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수입백출은 3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오미자** 자연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국내산 오미자는 거래 부진한 상황. 국내산이 근당 1만~1만2천원 선, 수입산이 근당 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황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1년근이 8천5백~9천원. 3년근은 1만6천~2만원, 6년근은 3만~4만원 선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큰 변동없이 보험세.

**강황** 큰 가격변동 없이 적정선에서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6천원 선이다.

**갈근** 수입갈근과 국산이 외형상으로 거의 구별이 안갈 뿐 아니라 가격에서도 많이 차이나 소비자들에게 국산갈근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갈근 도매시세는 근당 1천~1천1백원, 수입갈근은 3백~5백원 선이다.

**구기자** 수입구기자 근당 도매시세가 3천5백원 선이라면 국산 구기자는 근당 6천~7천원 선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갈근이 계속 수입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풍작을 거둔 구기자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택사** 근당 도매시세는 3천2백원 선으로 지난해와 보험세. 지난해 가뭄으로 물량이 다소 부족해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거래 부진한 상황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수입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북한산 한약재 8백80톤을 12월까지 반입키로 결정했다. 이수협측은 백출·차출 등 국내에서 도배가 활발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재배물량 을 감안해 통일원이 제시 하는 2천2백46톤 보다 대폭 축소된 물량이다. 이에 대해 이수협측은 3백톤 정도를 반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북한산 한약재의 품질확보방안이 시급하

# 북한산 한약재 8백80톤반입

## 의수협 수급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북한산 한약재 반입 확정량 (단위 M/T)

품목	반입확정 수량	통일원 제시수량
백출	300	525
창출	300	525
시호	20	147
오미자	30	84
지황	200	875
독단	30	70
천마	-	20
합계	880	2,245

### 건강 메모

혈부족으로 식욕부진 등 피로·권태 등이 무기력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더위로 인하여 원기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 「삼기」인원 탕을 복용하면 좋다. (재료) 당귀 4g, 견지황 3g, 맥 4g, 백복령 3g, 맥 4g

과이란 하들과 부 서지는 과도 비취 파 라술, 은빛 모래사장 여름 휴가: 여름철이면 생각나 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 짜증스러운 피 서갈에 치쳐서 잠을 자려해도 자지 못하고 입을 많이 흘려서 내의 수분결핍과 기

## 더위로 인한 원기소모에 삼기익원탕 복용, 효과

삼기익원탕은 위약재중 지모와 백은술로 법제하여 상기와 같은 탕으로 하루 3회 식후에 나누어 복용한다. 당귀·작약이 혈을 補해주고 인삼·복령은 손상된 氣를 키워주고 지모, 활백은 쓰근, 찬약으로 신방향을 위 의 열을 내려주어 수 분을 자연하고, 맥문 동은 補陰을 해주어서 더위에 지친 몸질을 회복하게 되고 피부를 탄력있게 해준다. <장경회약사>

문동 3g, 진피 3g, 지모 3g, 활백 3g, 인삼 3g, 오미자 3g, 멧살 3g, 갈근 3g, 대추 1g, 위약재중 지모와 백은술로 법제하여 상기와 같은 탕으로 하루 3회 식후에 나누어 복용한다. 당귀·작약이 혈을 補해주고 인삼·복령은 손상된 氣를 키워주고 지모, 활백은 쓰근, 찬약으로 신방향을 위 의 열을 내려주어 수 분을 자연하고, 맥문 동은 補陰을 해주어서 더위에 지친 몸질을 회복하게 되고 피부를 탄력있게 해준다. <장경회약사>